



(주)선명씨앤피 인쇄시연회에서 박경재 (주)일진PMS 사장과 이상철 (주)선명씨앤피 사장, 고모리 요시하루 고모리 회장



으뜸프로세스(주) 인쇄시연회에서 고모리 요시하루 고모리 회장과 으뜸프로세스(주) 양승동 회장, 양용모 사장

고모리, 최신 건조기술 H-UV 탑재 인쇄기 시연회 (주)선명씨앤피 · 으뜸프로세스(주) 초고속 양면인쇄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재)는 지난 11월 9일 고모리의 최신 인쇄기술인 H-UV시스템을 탑재한 인쇄기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는 고모리 본사 고모리 요시하루 사장, (주)일진PMS 관계자, 인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선명씨앤피와 으뜸프로세스(주)에서 열렸다. H-UV는 최신 건조 시스템으로 양면인쇄 시연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오프셋 유성인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쇄방식으로 책자, 카탈로그, 브로슈어, 라벨, 포장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격이나 기술면에서 많이 보급되어 이용이 쉽다는 것과 운용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외부에너지를 추가하지 않고 잉크를 건조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잉크가 건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래의 UV인쇄는 주로 두꺼운 종이를 인쇄하는 데 사용돼 왔다. 건조 대기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으며, 속건성이라 후가공시 굽힘 걱정이 없다.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아 트러블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기계 및 운용비용이 비싸고, 열·오존이 발생해 방청처리 및 덕트 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 고모리의 H-UV시스템이다. H-UV 시스템은 새롭게 개발된 UV램프 1개만을 사용해 고감도 UV잉크를 경화시키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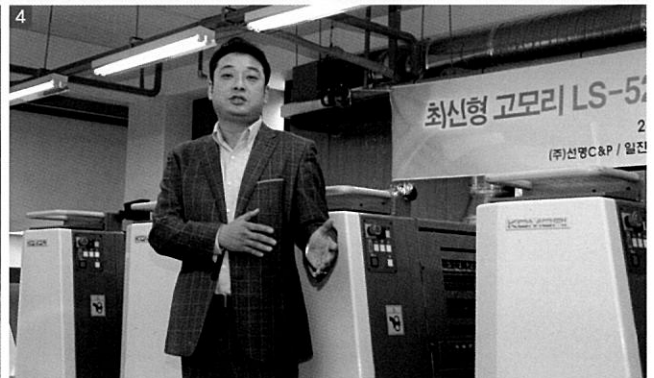
H-UV시스템은 사용시 발생 열이 매우 적고, 파우더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적으로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빠른 건조 덕분에 작업시간이 짧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특수한 용지 및 자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인쇄 후 발생하는 드라이다운(건조 후 색 농도가 변화되는 현상)이 없어 품질도 우수하다.

국내 1호로 도입한 디지털전문기업 (주)선명씨앤피

(주)선명씨앤피(대표이사 이상철)는 지난 2012년 4월 H-UV가 장착된 국산철 LS-526를 도입했다. 이날 시연은 H-UV를 사용해 스노우화이트지 250g에 시간당 1만2000매로 고속인쇄한 후 건조시간 없이 바로 뒷면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상철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 일진피엠에스 관계자, 인쇄인들에게 감사하다. 선명씨앤피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H-UV 시스템과 관련해 인쇄인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말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H-UV를 도입하고자 하는 인쇄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8개월 정도 H-UV를 사용해보니 건조성능이 세계 최고다. 그런데 국내 1호로 도입하다보니 하드웨어, 잉크, 약물 등 모든 것이 어려웠다.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안정화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제는 상업인쇄에 그치지 않고 패키지와 관련된 모든 소재에 인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중한 고객인 선명씨앤피 오픈하우스에 참석하게 돼 감사하다. 선명씨앤피는 다수의 디지털 기계를 갖고 있는 업체인데, 국내 최초로 고모



1. 선명씨앤피가 도입한 H-UV를 탑재한 LS-526 2. 이상철 사장(오른쪽)이 H-UV로 건조한 인쇄물에 대해 인쇄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3. 선명씨앤피가 생산한 다양한 인쇄물 4. 이상철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리의 H-UV를 탑재한 국반절 오프셋인쇄기를 도입했다. 오늘 시연회에 참가한 한국의 인쇄인들도 H-UV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선명씨앤피는 2000년 복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기획, 디자인, 인쇄, 출력, 품질관리 등 인쇄관련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품질의 디지털 인쇄장비와 일원화된 후가공장비로 올인원 시스템을 갖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유장비는 고모리 LS-526을 비롯해 HP인디고 3500, 제록스 누베라 288, 제록스 누베라 120 등 디지털인쇄기 9대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 상업인쇄사인 으뜸프로세스(주)

으뜸프로세스(주)(회장 양승동, 대표이사 양용모)는 지난 2012년 8월 H-UV가 장착된 대국전 GL-540+ 인터텍을 도입했다.

이날 시연은 한솔제지의 미스틱 157g, 뉴백상블루 150g, 몽블랑 130g 등 3종의 종이에 H-UV를 사용해 시간당 1만 2000매로 고속인쇄한 후 건조시간 없이 바로 뒷면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으뜸프로세스에서는 시연회외에도 H-UV를 사용해 인쇄한 증착지 금·은지 인쇄, PET(0.3톤) 등 샘플을 전시했다.

양승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멀리서 오신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께 감사드린다. 으뜸프로세스가 인쇄를 시작한 지 올해만 10년이 됐다. 창립 당시 고모리의 슈퍼리슨 인쇄기로 작업을 했지만 인쇄 뒷문음, 스크래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 H-UV가 탑재된 대국전 인쇄기로 교체했다. 현재 으뜸프로세스에서는 300선 인쇄를 기본으로 갤러리 도록 등을 작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PET·금은지 등 다양한 소재에 고품질인쇄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중한 고객인 으뜸프로세스 오픈하우스에 참석하게 돼 감사하다. 으뜸프로세스는 대기업 홍보물이나 갤러리 도록 등을 300선으로 인쇄하는 업체로 알고 있다. 대국전 GL-540+ 인터텍 도입 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우리도 최대한 많은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으뜸프로세스(주)는 ‘인쇄를 맛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고품질 미술작품과 도록을 인쇄하는 전문인쇄사다. 최첨단 스캐너, 출력기, CTP, CIP3로 연결되는 완전자동 인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300선 인쇄를 기본으로 500선, 700선, FM스크린까지 인쇄하고 있다. 1987년 설립해 고모리 4색 리스론을 가동하다 지난 7월 22일 고모리의 H-UV로 교체·운영하고 있다. 주요거래처는 삼성전자, 프리벨, 경동나비엔, 경인일보, 아라리오, 삼성문화재단 등이 있다. ⊕



5. 으뜸프로세스에서 도입한 H-UV를 탑재한 GL-540의 자동판교환장치 시연 모습 6. 양승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7. 양승동 회장이 H-UV로 건조한 인쇄물에 대해 인쇄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8. 으뜸프로세스가 생산한 다양한 인쇄물 9. 으뜸프로세스가 도입한 GL-540 시연 모습



〈인터뷰〉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

“건조문제 해결한 H-UV시스템 전세계 고객 찬사”

인쇄기 오퍼레이터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0일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린 제4회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에서 고모리 요시하루 회장을 만났다. 73살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요시하루 회장은 보다 오래 인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Q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고모리의 최신 기술인 H-UV시스템을 도입한 (주)선명씨앤피와 으뜸프로세스(주)의 시연회에 참석하고, 두성프린팅의 소국전인쇄기 LA-437 도입 계약식,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1박2일로 방문했다.

Q H-UV시스템은 무엇인가?

고모리가 2008년 개발한 시스템으로, 인쇄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다. 콤팩트한 설계지만 인쇄건조시간이 없고, 토털리드타임을 단축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파우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쇄트러블을 거의 없앨 수 있어 고품질 인쇄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무거운 화상이나 마르기 어려운 용지까지 단납기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비용·기술·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발표한 이래 전세계 고객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140대, 전 세계에서 200대의 주문을 받았다.

Q 지난 11월 10일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매년 일본에서 고모리스쿨이라는 오퍼레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개최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인쇄인들이 참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인쇄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국의 일진피엠에스와 협력해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기술교육 및 세미나에 참가하면 최근의 인쇄업계를 둘러싼 디지털화의 진전, 친환경문제의 대응 등 세계적인 인쇄 기술의 흐름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Q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가 파주출판단지에서 개최됐는데, 이곳은 처음 방문했는가?

인쇄사 및 출판사들이 입주해 있는 파주출판단지를 처음 방문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쇄사인 보진재의 사장이면서 파주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인 김정선 사장을 만나 파주출판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환경적인 환경속에서 대규모 인쇄사가 모여 있는 인쇄단지는 한국이 유일하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Q 한국 인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쇄기는 고도의 첨단기술이 응집된 장치다. 이 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인쇄사도 정리정돈이 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많은 인쇄사가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다 인쇄기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